

振興會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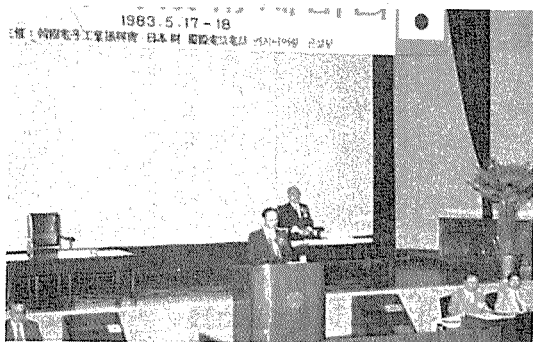
韓日電子技術세미나 盛況裡에 開催

本會는 海外 尖端 技術移轉의 일환으로 日本(財)國際電信電話엔지니어링콘설팅과 공동으로 韓日 尖端 電子技術세미나를 5月 17日, 18日 2日間에 걸쳐 貿易會館 9층 大會議室에서 開催하였는데 電子業界의 經營陣과 中間管理者, 遞信部, 科學院, 研究所 및 金融機關 등 相關기관에서 200여명이 참가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本會 姜晉求 會長은 開催人事말을 통해 韓日民間 技術 協力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선진기술의 협력과 개발을 통하여 現代情報 産業社會를 선도하고 앞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技術의 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자고 力說했다.

同세미나는 事務自動化機器(OA)와 半導體(LSI, VLSI), 컴퓨터, 通信機器 등 尖端技術에 役점을 두고 있다.

이날 基調講演에서 서울工大 李晁漢 工學博士는 「電子工業에 있어서의 技術移轉」이란 주제로 80年代 電子技術의 主軸은 通信技術과 컴퓨터 技術의 結合, OA 및 半導體 先進技術 移轉을 통하여 先進 技術入國을 지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本세미나가 이와 같은 바탕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와세다 大學의 平山 博 工學博士는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 韓日間에 國際的 分業과 技術分担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國際市場에서 양국의 과당 경쟁은 경제발전에 害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韓日間에는 상호 인간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技術協力을 위해 인적교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로는 日本 KDD 研究所 副所長인 寺村 浩一 工學博士를 비롯하여 學界 및 有數電子業界의 핵심 技術責任者를 총망라했다.

第14回 韓國電子展覽會 開催 案内

本會는 오는 10月 11일부터 10月 17일까지 7日 간 서울 永東의 大韓貿易振興公社 展示場에서 '83年度 第14回 韓國電子展覽會를 開催한다.

이번 電子展覽會는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한 放送施設 擴充을 위하여 放送通信機器館을 新設하고 情報産業의 現代화를 위하여 中점 展示하는 등 분야별로 특색있는 製品을 展示할 계획이다.

또한 展示場 규모도 13,200S/M(4,000평)로 크게 늘려 國內外 15個國으로부터 300여개 輸出업체를 대거 유치시켜 海外 電子製品을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國際的인 전문 展覽會로 꾸민다.

展示品目的의 다양화와 展示內容의 質적향상을 위하여 各部門에서 새로 開發된 新製品, 新모델과 主要先進國의 尖端技術製品, 최근 바이어들의 관심이 큰 品目 등을 총망라하여 展示하며 대대적인 海外 弘報活動을 展開하여 60여개국으로부터 4,800여명의 바이어를 유치하여 7億弗의 계약과 尙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하여 今年度 電子製品 輸出目標 26億弗 達成에 力을 當擔할 것이다.

이에 本會에서는 電子電機業體 및 相關 業體의 參加 申請을 받고 있으니 本會 會員業體 및 相關 業體는 積極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本會 國際展示部 展示課(778-0913/8)로 문의 바란다.

84年版 英文綜合Catalog 發刊 案内

本會에서는 電子·電機工業 振興事業의 일환으로 1975년부터 매년 1회씩 「英文綜合카탈로그(Korea

Electronics Catalog)」를 發刊하여 世界各國의 Buyer, 在外公館, KOTRA貿易館 및 來韓하는 Buyer, 海外有名 電子展과 韓國電子展 등에 집중 배포하므로써 우리나라 電子製品의 輸出 증대와 市場開拓에 이바지하여 왔다.

이에 금년에도 84년판 英文綜合Catalog를 電子機器, 電子部品, 電氣用品을 총망라하여 製作, 配布하므로써 國內 電子電機工業의 弘報 및 Buyer유치, 거래상담의 촉진에 倍前의 努力을 경주할 계획이니 여러 업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를 바란다.

1. 冊名 : 1984 Korea Electronics Catalog
2. 크기 : 가로21×세로28cm(菊倍判, 半洋裝)
3. 部數·面數 : 5,000部, 400page 内外
4. 發刊日字 : 1983. 8. 30
5. 신청서 마감 일자 : 1983. 6. 30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本會 資料發刊課(778-0913/8)로 문의바란다.

電氣用品 歐洲市場調查團 파견

本會는 國產電氣用品의 輸出을 증대시키고 技術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해 電氣用品 技術先進國인 유럽지역에 동건공업 등 11개 業體 대표로 구성된 電氣用品市場調查團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5개국에 파견했다.

本會는 지난해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市場調查活動을 전개한 결과 國產電氣用品이 경쟁력은 있으나 對外 弘報가 미흡해 수출이 미미한 점을 감안, 이번에는 電氣用品의 본고장인 유럽지역을 방문, 輸出가능 품목을 調査하고 주요생산공장을 檢査하는 등 技術開發을 유도토록 한 것이다.

鄭景春 신일정밀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조사단은 영국, 서독,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調査團구성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정경춘(신일정밀 사장)

- 단원 : 김진만(동건공업 사장)
권태완(신한일전기 사장)
강창길(동화양행 사장)
최대영(한양전자산업 사장)
김두한(한양전기산업 전무)
김용찬(반디상사 사장)
조규학(한성화학공업 사장)
김홍곤(민성전기 사장)
한기원(대현종합상사 사장)
서명수(우전전업사 사장)
- 간사 : 박재권(本會 技術調查部長)

83年度 아시아 대양주지역 民間貿易使節團 파견

本會는 아시아 대양주지역의 電子部品市場 開拓을 위하여 83年度 民間貿易使節團을 지난 5월 26일 싱가포르 등 4개국에 파견했다.

本會 김염 國際課長을 간사로 하고 엘렉스 등 13개 業體로 구성된 '83年度 民間貿易使節團은 6월 19일까지 電子부品の 市場開拓 및 輸出증대를 위해 4개국에 우리나라 電子부品の 弘報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夏季 CES 參加團 파견

오는 83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4日間 開催되는 世界 최대의 가정용기기 電子專門展인 夏季 CES(Summer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參加할 參加團이 지난 6월 3일 出國했다.

태광전자 등 12개社로 구성된 이번 參加團은 電子製品 海外市場 開拓, 家電製品 海外 투자선 모색, 海外 新모델 및 技術情報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참가하는데 本會 김경진 資料發刊課長이 간사로 出國했다.